

【 2016.12.05(월) 강원일보 】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5일 오전
10시30분 광주
힐리데이인호텔
에서 열리는 전
국 시·도회장 간

담회에 참석.

【 2016.12.05(월) 강원도민일보 】

경제인 동정



오인철
대한건
설협회
도회장
은 5일

오전 10시30분 힐
리데이인광주호텔
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회장단간담회
에 참석한다.

내년 SOC 예산 22.1兆

정부안보다 4000억원 증가
2017년도 예산 400.5兆 확정

내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 '수퍼 예산' 시대를 열게 됐다.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 대비 1.4% 증액되며 22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관련기사4면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00조7000억원에서 2000억원 감액된 40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올해 본예산(386조4000억원)보다는 3.7%(14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문화·체육·관광, 일반·지방행정 등 3개 분야는 정부안 대비 줄어든 반면 SOC, 산업·중소·에너지, 공공질서·안전, 연구개발(R&D) 등 6개 분야는 늘었다.

박경남·윤석기자 knp@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 내년 SOC 예산 22.1兆... 정부안보다 4000억 증액

6일 국무회의서 의결

SOC의 경우 예초 정부안예산 올해 본예산(23조7000억원)보다 8.2% 감액된 21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22조1000억원으로 4000억원 가량 증액되며 올해 예산 대비 축소폭(6.6%)을 줄였다.

특히 내년 SOC 예산은 철도를 중심으로 증액된 게 눈에 띈다. 내년 정부안에서 5183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서해선 북

선전철 예산은 650억원이 늘어난 5833억원으로 확정됐고 울산~포항 북선전철은 3275억원에서 100억원이 증가하며 3375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이천~문경 철도 건설과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은 각각 2726억원, 1561억원에서 150억원, 650억원 증액되면서 각각 2876억원, 2211억원이 편성됐다.

도로는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과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등이 증액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안에서 2487억

원 규모였던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은 200억원이 증가한 2687억원으로 확정됐고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최종 2143억원으로 정부안(1993억원)보다 150억원 늘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기간망 확충에 투입하는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재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박경남·윤석기자 ysys@

특별대담

'제27대 대한건설협회장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듣는다

제27대 대한건설협회 회장 선거가 오는 29일 협회 정기총회 경제신문은 차기 건설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독자 및 선거자들을 만났다. 권혁은 아이에스동서(주) 회장 겸 유주현 신협장을 위해 두 후보에게 유사한 질문을 던진 뒤 답변을 가감

'폭넓은 네트워크' 살려 건설산업 목소리 제대로 낼 것

권혁은 아이에스동서 회장



출마의 변

건설시장 '파이키우기' 최우선 지역 중소사 일감 확보에 총력

저는 1989년에 일선건설산업에 설립한 이래 28년 이상 건설업에 몸담아 온 건설인입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을 위해 동료 여러분과 나누고, 회원사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협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산업이 처한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건설산업의 제도 약'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고 상생발전을 위해 6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일에 최대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20조원 초반대의 정부 SOC 예산을 20조원 초반대로 끌어올려, 중소기업의 참여가 용이한 소규모, 생량형 SOC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제의 일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대형공사에 중소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건설공사를 하면서 손해를 보

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처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이 퇴출되도록 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입니다.

넷째, 건설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건설과 주택경기 정상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를 육성은 각종 금융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회원사 여러분이 협회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대폭 개방하겠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육성 특별위원회외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건설협회를 '일하는 협회'로 만들고 협회 유관기관도 오직 회원사를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협회의 업무와 인사 전반에 대해 연구회의를 거쳐 협회 사무처를 재구조화하겠습니다.

팔로 뒤로 심부름하면서 가려온 부분을 끌어드리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회장 출마를 선언했다. 왜 회장이 되고자 하는가. 또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가.

기업인은 뿌리가 있다. 여러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창업했지만 나의 뿌리는 건설업이다. 건설인으로서 건설업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식견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토목, 건축, 교량 등 안전분야가 없다. 건설업은 어려운 산업이다. 리스크가 집합된 사업이다. 건설업 경영자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한다.

현재 사회적 관심이 복지 분야에 많이 쏠려 있어 건설산업이 정부예산 등에서 소외받고 있다. 내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건설산업에 보탬이 되고 싶다. 정부, 국회 등에 두루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나의 경험과 건설업에 대한 애착, 네트워크를 그냥 놓아버리기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에 버팀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마하려는 것이다.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출마하는 게 아니다.

힘 있는 대한건설협회를 역설하고 있다. 당선된다면 어떤 협회를 만들 생각인가.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건설산업의 목소리는 자주 작아지고 있다. 역할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그야말로 살점이 다 떨어뜨려 배만 앙상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얼하다 분리발주를 하는 용어 어떻게 보면 건설산업은 쫓겨간 것은 산업이 돼버렸다. 그동안 건설산업의 목소리를 국민, 정부, 국회에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병을 알고만 있었지 치유하지 못했다. 나는 수술대에 올라가는 건설업자를 지원하는 의사가 되겠다.

건설협회의 수장은 정부, 국회와 네트워크를 갖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건설산업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다. 폭넓은 네트워크와 경험을 살려 건설협회를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6대 경제단체로 키우겠다.

건협 회장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또 스스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건설업이 얼마나 어려우니 제한된 사람이다. 부모를 뛰어넘어 건설사가 잘못되면 책상 위에 먼저밖에 안 남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재산을 직안담하는 등 3년 동안 아무 경제활동을 못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그리고 결국 중소기업을 조 단위 매출의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해봤다.

협회장은 건설산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폭이 넓은 사람이 맡아야 한다. 국회, 언론, 정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 한다. 많은 사람이 내게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회장이 되겠다. 협회장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참모가 할 일과 협회장이 할 일이 따로 있다. 건설산업 정책, 미래 비전을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사람받는 건설산업이 되도록 3년 동안 헌신하고 싶다.

또한 나는 검소하고 소탈하게 살아왔다. 비정규직 일용직에는 평생 한 번도 없은

여리기업 인수합병·창업했지만 나의 뿌리는 건설업이라 생각 정부·국회 등 마당발 인맥 바탕으로 건설협회 '6대 경제단체'로 육성

중소건설사 고충 너무 잘 알아 '든든한 울타리' 구축에 최선

적이 없다. 단거리는 이코노미, 중장거리는 비즈니스이다. 점심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구내식당에서 먹는다. 검소한 습관도 단체장의 덕이다. 울타리 밑에는

아이에스동서는 그룹으로 성장했다. 중소기업사에 대한 이해의 배려가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나는 내가 대기업 경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태생부터 중소기업자 태어났다. 중소기업에 오래 경영해왔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왔다. 눈을 찔른 병을 실컷 마쳐냈다. 지방 중소기업사의 애로, 애환, 고통을 생생히 알고 있다. 시달어가는 중소기업사에 힘을 주고 싶다. 여러가지 제약을 개선하겠다. 중소기업사들의 애로 사항인 배지기술자 보유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연말마다 자기 지비금을 맞추는 어려움도 개선하겠다. 또 건설업체 수가 많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장진입을 까다롭게 하겠다.

대·중소 건설사들의 균형발전에 협회 역할이 어렵고도 중요하다.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

협회가 되면 일기 동안 중소·중견·대형건설사들이 먹고 사는 터전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사들의 울타리가 되겠다. 이를 위해 중소·대형건설사가 맡아야 할 공사를 최대한 중소기업사가 맡아하도록 하겠다. 또한 중소기업사들이 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겠다. 한편으로는 대형건설사들의 협회 참여를 확대하겠다. 협회의 장으로 만들겠다.

주요 경력

1950년생
 빙 재단법인 중앙정책연구소 이사장
 아이에스동서(주) 회장
 1980~1984년 신동양건설(주) 부사장
 1987~1988년 반도봉은 설립·운영
 1989~2008년 일선건설산업(주) 운영
 2005년 JKL파트너스(주) 출자

2005년 아이에스건설 설립
 2008년 아이에스동서(주) 합병
 2010년 ㈜오션엔지니어링 설립
 2010년 ㈜삼풍테크 인수
 2011년 한국엔지니어링 인수
 2011년 아이에스해운(주) 설립
 2012년 아이에스지주(주) 설립

설사들의 울타리가 되겠다. 이를 위해 중소·대형건설사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겠다. 중소기업사가 맡아야 할 공사에 대한 건설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대형건설사는 그에 걸맞은 공사를 맡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사가 중견건설사로 커가고, 중견건설사는 대형건설사로 커가도록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겠다. 중소·중견·대형 건설사들이 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겠다. 한편으로는 대형건설사들의 협회 참여를 확대하겠다. 협회의 장으로 만들겠다.

건설공제조합의 기금을 중소기업사들이 주로 맡는 지역 SOC사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사를 한 곳 선정하고, 4~5개 회사가 건설사업을 구상해 공동투자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공제조합뿐만 아니라 증권사, 각종 연·기금의 자금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다. 또한 표준시정당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공시비 산출단계부터 원가와 수익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해외건설 시장이 매우 침체돼 있다.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중동, 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크다. 주택만 해도 아파트 뿐 아니라 타운하우스 등 상품을 다변화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중소·중견건설사들이 처음부터 큰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걸맞은 사업분야로 진출해야 한다. 모든 대·중소 건설사가 나라이기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상당수 저개발 국가에서는 상하수도 등 소규모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을 개척할 수 있다. 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도록 정부와 함께 힘쓰겠다. 특히 개발금융의 역할이 해외시장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겠다.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인단에 어떻게 호소하고 싶은가.

협회장을 선택할 때는 후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 협회운영 비전이 중요하다고. 누가 봐도 승급할 수 있는 후보가 되어야 한다. 비전을 크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세상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협회 임무경험이 없다는 점을 단점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건설협회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이 갖고 있는 신선한 시각도 중요할 수 있다.

정리·한성준기자 newspsia@사건·인문소식기자 ays77@

존경하는 인물·경험있게 읽은 책은? 한비자. 한비자 같은 삶의 지혜로 살고 싶다.

20여년간 협회일 해온 '준비된 사람' 3년 단임제에 최적

유주현 신한건설 대표이사



출마의 변

새로운 건설시장 발굴에 역점 원로회의 신설, 열린협회가 될 것
저는 앞으로 2-3년이 건설산업 생...

대한건설협회 회장 선거에 나서는 심정이 어떤가. 어떤 포부와 목표를 갖고 있는가.
협회에서 오랫동안 도회장과 각종 직책을 맡아 왔었다. 공약을 위해 열심히...

중소건설사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사 진흥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다.
중소건설사를 경영하다 보니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건설업등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누구보다 협회 갈등과 경풍 쌓아 시행착오 없이 현안 해결 강점 회원사 고충-목소리 경청하고 '건설물량' 확충에 역량 집중
중소건설사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사 진흥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다...

당선한다면 역할을 기울이고 싶은 사업은 무엇인가.
건설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런 점에서 우선 건설물량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역량을 쏟고 싶...

협회의 역할을 논할 때 비관주의의 장점이 있다면.
건설업의 업무가 잘 아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랫동안 협회 일에 많은 시간을 바쳤다. 1993년에 경기도회 간사를 맡은 이래 1997년부터 대의원으로서 활동했다...

장차 대원이 유력하다. 선거구인 과반의 표를 얻어야 한다. 어떤 전략인가. 유권자격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고 싶은 일과 관련 정책을 갖고 한 번, 한 번 소통하고자 하는 게 전략이라 면 전략이다.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나...

주요 경력
1952년생
현 신한건설협회 대표이사
1972-1976년 중앙대 정외과 입학-졸업
1993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간사
1997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
2003-2006년 건설경제위원회 회장
2003-2016년 건설경제조합 대의원

2003-2006년 대한건설협회 본회의사
2004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
2005-2008년 건설경제조합 운영위원장
2006-2009년 건설 경기기도 10대 회장
2006년 대한건설협회 위원부회장 선인
2007년 경기도 건설경제위원회 회장
2009-2012년 건설 경기기도 대의원

2012-2015년 건설 회담회사 선인
2012년 건설 경기기도 명예회장
2015-2016년 대한건설협회 회원이사
준결론의 인물-경명회가 깊은 현안?
이승신 장군. 예민하고 섬세한 인간미와 통찰력을 난중일기에서 배웠다

이 밖에 공사비 부담 삭감, 발주처 불공정 행위, 공사비 이의신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